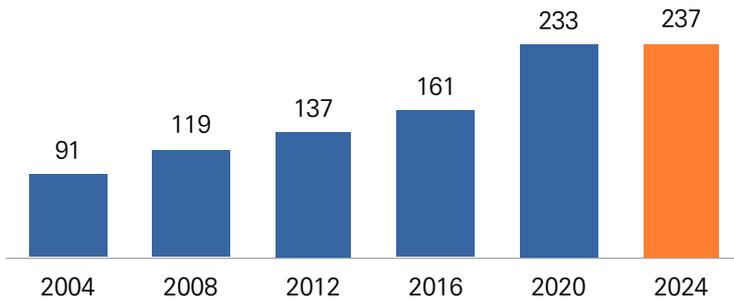




['그냥 쉬었음' 인구 현황] '쉬었음' 인구, 코로나 이후 역대 최대 기록!

-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와 학업 등 뚜렷한 이유 없이 일하지도 않고, 구직도 하지 않는 자들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기에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데 이런 '쉬었음' 인구 현황을 통계청 '경제활동인구조사'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.
- 2024년 2/4분기 기준, 우리나라 '쉬었음' 인구는 237만 명으로 2020년 코로나 기간(233만 명) 세웠던 최고치를 넘어섰다. 10년 전인 2004년 91만 명 대비 160%나 증가한 수치이다.

[그림] '쉬었음' 인구 수 추이 (연도별 2/4분기 기준, 만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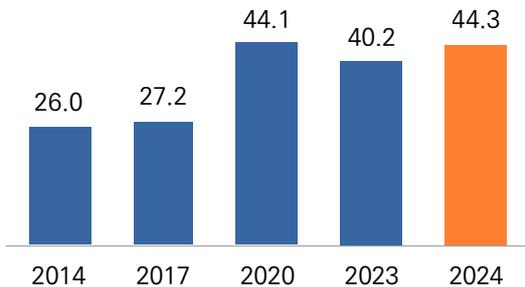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통계청 KOSIS, '경제활동인구조사(연령/활동상태별(쉬었음) 비경제활동인구)', 2024.08.
(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_1DA7147S&conn_path=I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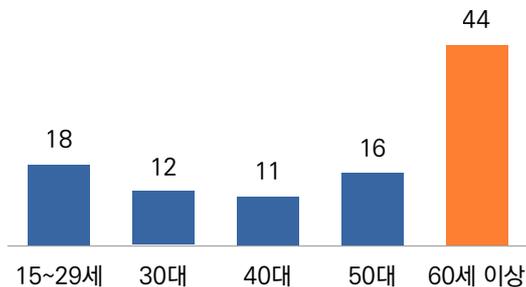
청년층 '쉬었음' 인구, 60세 이상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아!

- 청년층의 '쉬었음' 인구 수는 얼마나 될까?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역시 앞서 전체 '쉬었음' 인구와 마찬가지로 2020년 44.1만 명으로 201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으나, 2024년에는 2020년 기록을 뛰어넘는 44.3만 명으로 집계됐다.
- 2024년 7월 기준 연령대별 '쉬었음' 인구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이 44%로 가장 많았고, 15~29세 청년층도 18%로 나타나 청년층 '쉬었음' 비중이 고령층(60세 이상)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.

[그림] 청년층 '쉬었음' 인구 수 추이
(전년 동월(7월) 대비, 만 명)



[그림] 연령대별 '쉬었음' 인구 비중
(2024.07, %)



※출처 : 중앙일보, '그냥 쉬는' 청년 44.3만명 역대 최대...75%는 "일할 의사 없다", 2024.08.18. 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1311>)
※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2024년 7월 고용동향, 2024.08.14.